



◇인친 용화사 법당에 모셔진 윤이상씨의 영정과 위패.

“그립던 고국에 환생하길...”

故윤이상씨 인천용화사서 반흔제 거행

지난 4일 독일 베를린에서 78세로 음악인의 생애를 마감한 작곡가 윤이상씨의 고향을 안치하는 반흔제가 인천 용화사에서 지난 6일 오전 10시에 거행됐다.

지난해 불교에 귀의한 윤이상씨의 위패가 모셔진 용화사에서는 7일 단위로 칠칠제가 치러진 뒤 49제가 봉행된다. 이날 반흔제는 용화사 스님들과 여동생 윤동화씨 등 친지·동료 음악인들이 참가하고 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용화사에는 고인의 조상 위패가 모셔져 있다.

기관지천식, 당뇨병, 신부전증으로 시달려 오며 69년 독일이주이후 단 한 번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아쉬움을 삭여왔던 윤이상씨는 그의 음악적 재능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

은 대작곡가. 그는 '예악' '낙양' '나비의 꿈' '공주여 영원하라' 등 관현악과 실내악 오페라 1백여곡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우리 전통음악의 선율을 가미한 곡조로 주목받았다.

장례절차·일정 미확정
베를린서 병오스님 전해

독일 베를린 보문사 주지 병오스님에 의하면 4일 타계한 윤씨의 장례절차와 일정은 7일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를린 발트병원에서 자택으로 시신이 옮겨진 윤씨의 장례문제에 대해 가족과 동료 제자 등 몇몇이 숙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간소하게 치뤄질

것이란게 가족들의 뜻이라고 병오스님이 전했다.

월주총무원장 조의표명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9일 베를린 자택 빈소로 “고인께서 남긴 음악은 세계인의 가슴에 남을 것”이라며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조전을 보냈다.

불교인권위 애도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지난달 6일 고윤이상씨의 작고와 관련 애도 성명을 통해 “선생께서 하루빨리 통일조국에 환생 하시기를 부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종로구 회관에서 위치한 사무실에서 고인의 칠칠제와 49제를 봉행한다. (02)734-6401

젊은 작가에 문호개방 “부처님 전하는 공간으로”

인터뷰 성곡미술관 초대관장 박문순씨

“미술관을 준비하며 거의 1년간은 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개관이 됐으니 개관 관련 일이 마무리되는대로 부처님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지난 8일 개관된 성곡미술관 관장 박문순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실한 불자다. “어릴적부터 사찰을 다니며 절에 있는 많은 그림들에 발간 관심을 가졌던 것이 미술관 관장이 되려는 인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는 박씨는 위치까지 밝히기

만든 미술관의 규모는 연간경 6백평이며 전시공간만 1백80여평이다. 앞으로 야외 조각공원도 조성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미술관은 성곡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석원)이 중심이되어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관에 맞춰 ‘시멘트와



임연태 기자

어릴때부터 사찰그림 관심 지타공인 ‘불심 돈독’

는 꺼리면서 “조그만 암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성곡미술관은 젊은 작가를 집중 양성한다는 원칙과 기업 문화참여라는 대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개관했다. 종로구 신문로 성곡 김성곤(쌍용그룹 창업)씨의 애정을 개조해 미술의 만남전’도 문을 열었다.

박문순관장은 “젊은 작가 양성이란 미술관의 운영방침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이기다”고 말했다. “젊은 작가 양성이란 미술관의 운영방침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이기다”고 말했다.

또한 미술인구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장애아 어린이등 미술영역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과 실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것이 박씨의 구상이다.

노래하는 전법사 ‘성음’ 공양 불광사 바라밀다합창단 26일 발표회

지난 17년간 ‘노래하는 전법사’의 긍지를 가꿔온 불광사 바라밀다합창단이 오는 26일 오후3시 단국대 난파음악관에서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남녀혼성 4부로 구성된 바라밀다합창단은 이날 발표회에서 불광사 법주 권덕성님의 시에 정부가교수(중대)가 곡을 붙인 ‘임의 숨결’을 비롯 ‘일심참회’ 등 찬불가, 가곡, 광송 등을 들려준다.

조계사 보리수합창단과 불광사 연꽃어린이합창단이 찬조출연하며 바라밀다합창단의 남성 중창단도 특별순서를 마련했다.

악권 4개 시·군 주민설명회를 오는 15일경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문화재단리국은 오는 96년말까지 설악산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속초시를 방문, 설악산 생태계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나 지역주민들은 설악산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개발계획수립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해 왔다.

“선조들 茶詩로 차문화 엮보기” 차생활문화원 다시서예전...21~26일 예술의전당

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김승희)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전당 3층 전시실에서 다시서예전(茶詩書畫展)을 갖는다.

이전 전시에는 월하종정스님, 석주스님, 승찬스님, 일타스님 등 큰스님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김능성 김동연 신정희 조용원 이기원 등 서예가 55인이 법해가 초에 대해 회고한 초의다(草叢茶), 송나라 내대경 다시(茶詩) 등의 내용을 쓴 작품 55점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자의 차로서 선열(禪悅)의 세계에 노닐던 다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와 차문화 저변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은 서사시 ‘백두산’ 가극무대 27~30일 세종문화회관

이 공연에서는 30여곡의 신작극노래와 50명의 군중무대가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몸짓언어로 표현한다. 문호근씨가 연출을, 안무는 오세란씨가 맡았다. 이 공연은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다.

관음정근 통일발원 모습 “생생”

“작년에 부처님께 귀의한 이후 오빠는 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인천 용화사 신도이며 윤이상씨의 여동생인 윤동화씨는 고인의 불심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회고했다. 특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으나 도가(道家)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민족 전통의 가락과 문화를 좋아했던 고인은 말년에 부처님께 귀의하며 더욱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했다는 것이 윤씨의 얘기다.

“현저 가족에게 들으니 임종 직전까지도 부처님께서 조국을 통일시켜 줄 것이라 말하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더군요. 뒤늦은 귀의였지만 오빠의 불심은 정말 뜨거웠어요. 조국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부처님께로 회향하는 듯했지요.”

서대문의 집에서 매일 용화사를 출퇴근하며 고인의 넋을 위해 기도하는 윤동화씨는 “오빠의 음악은 불교의 정신도 깰것처럼 있고 또 불교를 주제로 한 음악도 만든 적이 있다고 생전에 말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국내에서 고인이 남긴 불교음악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소를 마련하고 반흔제도 자냈지만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오빠의 한은 쉬사그라질 것 같지 않아요. 불보살님의 가피로 오빠가 고국땅에 환생하시길 바랍니다.” (태)

불심시심 (36)

태산인양 요지부동

蕭瀟文殊寺 (소쇄문수사)	말쑥히 씻긴 문수사
今來山雨餘 (금래산우여)	빗속에 이제 찾았다
空禪人事小 (공회인사소)	나그네 드무니 인간세사 없고
城遠俗緣疎 (성원속연소)	도성이 먼 세속 인연 적다
靜裡塵懷淨 (정리진회정)	정적하기에 티끌 마음 씻기고
關中道阻虛 (관중도안허)	한가로서도 찾는 눈 트이다
屠僧皆入定 (거승개입정)	선정에 든 모든 스님들
不動太山如 (부동태산여)	어찌된 저 태산인양 요지부동

윗 시는 영월당(詠月堂, 1570~1654)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문집에 전해지는 시는 차운의 시가 많은 것으로 보아 대사는 승속간의 만남에 있어 주로 주고 받은 듯한 인상을 갖게 하니 시집 중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는 대사가 느끼는 만남과 이별의 소박한 감정을 잘 표현한 듯하다.

“이별의 얼굴은 웃음이 있는 꽃만 같지 못하고, 이별의 정은 속이 빈 대만 하기가 어렵다(別面不如花心笑 離情難似竹無心)” 하였다.

이런 점을 두고 백곡(白谷) 선사는 ‘대사의 시에는 선기(禪氣)가 많으니 스스로 깨우침이 있어 말로 표현된 것이 저절로 성품에 어울림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시도를 터득했을까’ 했으니 위 시는 어찌보면 이러한 선기의 깨우침이 아닐까 여겨진다. 한적한 문수사의 풍경을 담담히 서술하였지만 산사에

서 추구하는 선정의 고요함이 한 순간에 모두 응집된 느낌이다.

첫 구에서부터 산뜻한 느낌을 갖게 한 말쑥하게 씻어진 절이다. 지금 빛 속에 이르렀다. 그러기에 첫 구의 말쑥함이 더 생동감이 있게 느껴진다. 두 구의 어울림은 구김없는 진솔함이다. 산사시에 사람이 적다거나 도성에 멀어짐이 당연하지만 세속의 인연이 적도록 꾸며진 배경에는 첫 구의 말쑥한 벗겼한 ‘소쇄’의 한 단어의 힘이 매우 크다. 시어의 선택이 이래서 어렵고 또한 이래서 성공되기도 한다.

고요함이란 산사의 정경을 대변하는 단어이지만 도안까지도 흰하 트이는 경지는 이 산사에 주석한 각자 스님의 몫이다. 선정에 든 스님들이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산처럼 진중히 가라앉은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김중섭작 '천백역화산'. 김중섭씨 창작불화 독일 전시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에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지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